

• 희망플러스 · 꿈나래 통장 참가자 수기집 •

희망과 꿈을 키워요

2013

희망플러스

꿈나라

희망플러스통장 도전, 그리고 가입 후 / 유상곤	06
희망+꿈 그리고 사랑 / 안상순	08
희망플러스통장으로 이제는 호강하고 살아요 / 정영실	10
친정엄마 같은 '희망플러스통장' / 신미애	12
희망플러스통장으로 변화된 삶 / 채경임	15
희망플러스통장은 계속된다 / 최성숙	17
희망플러스통장으로 얻은 보금자리 / 이순남	20
희망플러스 졸업과 또 하나의 꿈 / 신인숙	22
친절, 배려 그리고 나눔의 희망플러스통장 / 유석창	25
희망플러스를 마치며 / 배아라	28
희망은 내가 뿌리는 씨앗 / 김민재	30
희망플러스와 나의 창업이야기 / 이정희	33
희망플러스와 함께한 3년, 내게 남은 것들 / 김선희	37

꿈나라통장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 김연정	40
삶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 김민정	43
나의 든든한 뒷심, 꿈나라통장 / 김윤환	44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 이명옥	46
꿈나라통장의 알곡들 / 강희정	49
시련과 좌절, 고통 대신 노력과 희망, 행복으로 CHANGE / 김선미	51
꿈나라는 계속된다 / 박은영	55
새로운 즐거움이 있는 곳 꿈나라통장 / 장미애	58
작은 꿈으로 삶의 변화 만들기 / 이원빈	60
고마워, 꿈나라통장 / 이현숙	63
꿈나라통장이 키운 우리 아이 / 최순화	65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씨앗 / 김숙진	67
희망과 꿈이 더해진 우리 가족 / 정은주	69
희망과 꿈이 컸어요 / 오희숙	72
감동을 배웠습니다 / 홍성애	75
꿈의 씨앗을 가꾸고 있는 조호윤, 호진 엄마 / 이혜연	78
나의 생활에 활력소 복지관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들 / 구홍서	80
예술로 희망드림으로 키운 꿈나무 / 차유미	84
내 가족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 / 김태완	87
희망에너지 / 정연형	89

희망과
꿈을 키워요
2013



희망플러스

P A R T

1

희망플러스통장 도전, 그리고 가입 후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유상곤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느 날, 버스광고에서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나도 가능할까?' 라는 의문과 도전정신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강남구청 담당자의 친절한 목소리가 귓전에 들려 왔다. 심사 과정이 있으며 일정기준에 적합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약 3년 전 심사와 면접 등 일정의 절차를 밟아 희망과 꿈을 가꿀 수 있는 희망플러스통장에 참가하게 되었다. 부푼 희망의 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때로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유지에 고심하던 날들, 일을 하고 있어도 저임금으로 생활비 충당이 안 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왜 나는 이런 생활이 계속되는 것일까?' 뭔가 끊임없이 해보려고 열심히 발로 뛰 어보지만 더 어려워진 생활여건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고 상처 받게 만들었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구호와 평생직장의 신념으로 구슬땀 흘리며 일하던 회사생활이 가끔 떠오르곤 한다. IMF 당시 희망퇴직의 권고로 아무 준비 없이 회사에서 떠밀려 나오다보니 새로운 각오와 재탄생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직업교육을 받은 후에도 재취업이 안 돼 한동안 생활고를 겪어야만 했다. 덩달아 오르는 물가와 전세자금의 인상금도 큰 부담이 되었다. 수입이 적어 절약하는 습관이 체질이 되어 가고 있었다.

이렇게 어려운 생활 중에 시작한 희망플러스통장은 나에게 희망과 꿈을

가득 안겨줄 수밖에 없었다. '저축 원금 액의 두 배'로 가꾸어 주는 자산증식형이라는 문구가 경제적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나에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일 년에 세 번 실시하는 금융교육이 내 경제활동의 착한 도우미가 되기에 충분했다. 유명강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금융교육은 평생 알찬 씨앗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희망플러스통장 가입 후 전에 없었던 꿈과 희망을 더 크게 소유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보다 더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담당 사회복지사의 친절한 안내와 배려와 함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많은 정보가 내 삶의 큰 희망과 보탬이 되었다.

통장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 희망과 꿈을 많이 꾸어야 그 꿈과 희망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희망+꿈 그리고 사랑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안상순

우연일까? 필연일까? 내게는 2009년 2월부터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 못다 이룬 학업의 꿈인 대학에 진학했고, 그해 9월 '희망+꿈 그리고 사랑'의 첫걸음마가 시작된 해였지만, 좋은 일 가운데 어려움도 찾아와 '희망+꿈 그리고 사랑'을 아프게도 했다.

그 아픔은 내게는 충격이었다. 그해 10월 남편의 갑작스런 급성췌장염으로 치료를 받던 중, 당뇨까지 겹치면서 불치병으로 판정받았고, 11월에는 장애가 있던 딸마저 경련성 쇼크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왼쪽 고관절 탈구까지 겹쳐 24시간 통증을 호소했다. 2009년은 아픔의 흔적을 남기며 지나갔다.

또다시 2010년 3월에는 더 큰 삶의 고비가 찾아왔다. '희망+꿈 그리고 사랑'이 금방 쓰러 질것만 같은 아픈 시련의 연속이었다. 그나마 다행인건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 사전에 중도 포기란 없다. 아니 불가능은 없다. 도전과 전진만이 나의 살길이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희망플러스통장의 저축은 한 배 두 배로 '희망+꿈 그리고 사랑'이 쌓여 작년 8월에 만기가 되었다. 그러나 남편의 병이 재발되어 희망플러스통장을 반 토막 내 수술비로 충당했다(몇 차례 수술을 했지만 췌장염은 완쾌 불가요 통증까지 호소한다). 또한 딸아이는 장애와 고관절 탈구로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3년에

다니고 있다. 아픔을 참고 학교생활을 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훗날 딸아이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하는 고민으로 잠 못 이룬 적도 많았다.

모든 아픔을 행복으로 돌리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공부한 결과 대학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고 마침내 지난 2월에는 사회복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반쪽 남은 '희망+꿈 그리고 사랑'을 위해 대학원에 도전하기로 했다. 내가 불입한 금액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지원금은 신청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가에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석사과정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래서 2013년 3월 그리스도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에 등록하여 벌써 한 학기를 마치고 지난주에 방학을 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여 배움의 길을 가는 동안 마을봉사단을 결성하여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까지 몇 개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자원봉사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현재 3,000시간을 향해 달리고 있다. 그리고 앞날의 발전과 '희망+꿈 그리고 사랑'을 위해 딸아이가 고등학교 졸업 할 때까지 간호조무사 교육도 받고 있다.

끝으로 오늘까지 달리고 달리는 인생 속에서 모진 풍파와 거친 파도가 휩쓸다 해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희망+꿈 그리고 사랑'이 곁에 있기에,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며 모든 재능을 다 베풀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살다보니 오늘이 내게는 행복한 날이요,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희망플러스통장으로 이제는 호강하고 살아요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정영실

‘희망과 꿈을 키워요’ 공모 내용을 접하며 3년 전 서울시가 저소득층 자산 형성 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을 신청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 시절, 나의 현실은 계속되는 시련의 굴레에서 헤어날 길 없는 이혼이라는 아픔 속에 덜렁 늦둥이 두 아이만 남겨졌으니…….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키우기 힘들다는 자식 키우기를 여자 혼자 꾸러가는 힘겨움 속에서 희망플러스통장의 플랜 카드에 ‘희망을 저축하세요. 서울시가 두 배로 돌려 드립니다’의 문구는 어두운 밤길을 비쳐주는 한줄기 촛불이었습니다. 화려한 내 집에서 안락한 삶을 살다가, 이혼으로 살게 된 지하셋방은 바퀴벌레와 눅눅한 곰팡내로 찌들고 기어 들어갔다 나와야 할 만큼 비좁은 곳이었습니다. 낮에도 어두워 불을 켜야 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늦둥이의 책상 하나 없이 지내야 했던 시절에 ‘무슨 수로 희망과 꿈을 키운단 말인가!’ 탄식하던 차에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날 이후, 조건부 수급자로 일을 하며 안 먹고 안 쓰고 허리끈을 더 조이면서 희망플러스통장에 희망과 꿈을 심으며 3년을 붓게 되었지요. 서울시복지재단의 금융교육을 통해 저축습관, 합리적인 소비 생활 등의 교육으로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고요, 재무컨설팅, 자산관리교육은 절망 속에 탄식하고 있던 차에 자립을 촉진시켜 주는 막강한 힘이 되었답니다.

허리끈을 풀라매며 부은 적금은 어느 여유로운 사람들의 적금 붓기보다 몇

곱절 힘겨운 인내였기에 만기가 되어 적금을 타던 날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벅찬 감동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달팠던 희망플러스통장 3년 적금 붓기는 안으로는 경제적 풍요로움을 성취하였고, 밖으로는 재무컨설팅, 자산관리 등의 교육을 통해 무지에서 눈을 뜨며 저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희망과 꿈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막강한 계기가 되었지요. 더불어 노원1복지관에서 지원해 주는 자조모임과 갖가지 행사 참여를 통해 구질구질함에 찌들고 멍들어 가던 마음을 열고 회원들과 동병상련으로 역경을 이겨나가는 삶의 자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기 적금을 타서 저소득층전세대출금 중 일부를 갚으니 한결 경제가 수월해져 마냥 뿌듯합니다. 희망과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생활하니 나날이 좋아지는 현실 속에 저소득층수급자장학금 혜택으로 대학을 졸업한 딸이 당당히 대기업에 취직하여 이제는 절망과 시름의 늪에서 빠져나와 자식 잘 키워 호강하는 엄마로 살고 있으니……. 역시 희망과 꿈을 키우게 해준 희망플러스통장입니다.

벅차오른 감동에 침묵할 수가 없어 적금을 탄 회원으로 ‘희망과 꿈을 키워요’ 수기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복지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친정엄마 같은 ‘희망플러스통장’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신미애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30도가 쉽게 넘어가는 요즘, 저녁이 되어도 무더위는 식을 줄 모릅니다. 오늘 저녁은 더위를 피해 아이와 함께 집 앞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항상 똑같던 공원풍경이 오늘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늘에서 희망이라는 별이 마구 쏟아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을 시작한지가 엇그제 같았는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족한 보증금에 월세로 살았는데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인 저축액과, SH공사의 도움을 받아 전세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월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아봅니다. 많은 나날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릴 적 꿈 많던 소녀시절, 친구와 함께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를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이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어 그저 평범하게 아이들과 행복을 나누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바쁘게 숨 한번 제대로 고르지 못하게 옥죄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불행은 남편의 사업실패와 아이의 희귀난치병질환으로 내게 덮쳐왔고, 그로 인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은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절망에서 헤매던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의 반복되는 입·퇴원으로 생활비의 우선순위가 의료비 지출이었고, 이를 감당 못해 늘어가는 빚은 우리가족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호전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 아이의 몸은 더욱 만신창이가 되었고, 결국에는 만성신부전이라는 병까지 얻게 되어 혈액투석으로 기계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린나이에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위해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감옥을 향해 가는 무거운 발걸음이었고, 투석기계 소리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들리는 공허한 바람소리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 또 절망을 했지만 아이 앞에서는 일부러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인 내가 절망하는 모습을 아이에게는 차마 보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장이식을 해서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얘기하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0년 ‘희망플러스통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은 그렇게 우울했던 나의 인생에 있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 앞에서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는 없다고! 하루를 계획도, 희망도 없이 미래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저축은 생각도 못해봤지만, 희망플러스통장 이것만은 꼭 내가 이루어 내겠다고, 나 스스로를 격려하고 용기로 버티며 힘든 3년의 시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나요?’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2013년 5월 마지막 저축을 하던 날, 나 자신이 얼마나 대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나 스스로에게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절망과 어두움뿐인 나에게 희망플러스통장은 한줄기 빛이었고, 그저 묵묵히 나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정엄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과 은밀한 연애를 하던 중, 또 다른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2012년 12월, 기나긴 투석으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에게 저의 신장을 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술이 잘 돼 소변이 잘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취도 덜 깬 상태에서 너무도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큰

수술을 이겨낸 아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부모로서 그 래도 즐겁게 있어서 너무도 감사했던 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희망플러스통 장은 나의 어둡던 인생에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희망플러스 통장의 필수교육인 주택과 금융교육은 나에게 많은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그 로 인해 SH공사의 전세지원을 받게 되어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 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나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지켜준 '희망플러 스통장' 너무도 고맙습니다. 정말 친정엄마와도 같은 든든한 힘으로 나를 이 자리에 우뚝 서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원망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 에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지 않고, 용기 내어 살아가겠습 니다. 부족하지만 어려운 이웃과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희망플러스통장 파이팅!! 우리 모두 파이팅!!'

끝으로 서울시복지재단과 희망플러스통장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으로 변화된 삶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채경임

안녕하세요. 저는 고1, 고3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장입니다. 남편은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을 나갔고, 먹고 살 능력이 없는 저는 두 아 이를 키워야만했습니다.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 아이들 몰래 눈물로 10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대문도 없는 반지하방에서 꼬박 7년을 살았는데, 방문 을 열면 바람 때문에 부엌이 너무 춥고, 화장실 변기와 수도꼭지는 날마다 얼었습니다. 여름엔 습기로 벽과 장판엔 곰팡이가 가득하고 손바닥만 한 벌 레가 펄펄 뛰어다니는 곳에 살면서 고기 한번, 밥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라면으로 하루를 버티기도 했습니다. 쌀을 싣고 가는 트럭만 보아도 너무 부러웠고 겨울에 내리는 흰 눈만 봐도 쌀이면 좋겠 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루는 직장을 구하러 이력서를 들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들어올 때 과자를 사오라고 했지만 주머니에는 달랑 20원이 전부 여서 그냥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은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은 나머지 설탕을 짙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큰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되던 해에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선정되고 보니, 관리비 부담으로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께 기 도하며 이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15평은 작을지 모르지만 저희 세 사람에게에는 천국이나 다름없는 그저 감사한 공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살 던 집은 늘 어둡고 추운 곳이었는데, 이사한 집은 햇볕이 잘 들고, 바깥 날

씨가 추운지도 모를 정도로 따뜻해서 너무 좋습니다. 가끔씩 작은 아이가 자기 방을 달라고 노래를 부르지만 저는 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뜻밖에도 제가 유방암이란 판정을 받았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수술을 하고 약을 먹으며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저의 삶에 미래를 약속하는 저축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두 아이들과 먹고 살기 위한 포장마차를 할 생각으로 희망플러스를 가입했는데,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이 너무 커서 주거비를 조금이나마 줄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3년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만기가 다가오니 너무 기쁘고 흐뭇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다 보니 하루하루 사는 것이 늘 부족하지만 감사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살다보면 웃을 날이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3년 동안 금융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때로는 귀찮기도 했지만 강사님들을 통해 얻은 지식을 일상 생활에 적용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배운 지식으로 생활하면서 뿌듯함은 더 커집니다.

1. 적금 만기가 되면 찾아서 쓰지 말고 잔액을 합쳐서 다시 적금을 들기.
2. 잔돈이나 천원, 이천 원을 저금통을 만들어서 저금하기.
3. 적금을 하면 1%로 더하기

이번 만기가 끝나더라도 다시 한 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기회들이 어렵게 사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은 계속된다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최성숙

2010년 5월 희망플러스를 만난 것은 아무런 희망 없이 어두운 터널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저에게 터널의 끝을 알리는 희망의 종소리였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의 첫 번째 탈락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두 번째 도전하면서 면접을 볼 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나의 재정 상태를 오픈해야 하는 상황이 내 삶에 대한 원망과 서글픔, 창피함에 자존심이 상해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만 싶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정되어 매달 적립금 불입을 시작하면서 '나같이 어려운 살림을 하는 사람도 돈을 모을 수 있구나, 또한 이것으로 내 가계의 재정을 계획할 수도 있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냥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마이너스 인생 굴레 속에서도 이러한 희망을 갖게 된 것은 우리 가정에 큰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또한 1년에 세 번 받았던 금융교육도 힘이 되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막연히 알고만 있었던 금융상식과 나처럼 없는 사람들이 재정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전문가의 강의와 질의문답을 통해 실제로 알게 되었고 내 가정에 접목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통장 분산하여 사용하기, 물건사고 남은 잔돈(천 원 짜리) 따로 모아서 목돈 만들기, 열심히 벌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것이 건강한 경제활동이다'라는 작은 실천들이지만, 어느덧 희망을 적립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는 그냥 되는대로 '아! 나는 원래 마이너스 인생이야, 나는 어차피 빚으로 사는 생활이야'라며 자포자기했던 모습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물질로 보상할 수 없는 큰 자산을 얻은 것입니다. 희망플러스가 있었기에 작은 돈이라도 저금하는 습관이 생겼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현명하게 경제생활을 하려고 더 많이 노력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카페활동을 통해 많은 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혜택도 있었습니다. 내 형편으로는 꿈도 못 꾸는 예술의전당에서 오페라도 보고 대학로에서 연극도 볼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도 맛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매달 20만원이라는 거금의 저축을 해야 하는데 적은 수입의 우리 가정에서는 무척이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실직(8년간)으로 인해 110~130만원의 외벌이의 한 달 수입으로 두 아이(현재 대1, 중2)의 교육과 가정을 꾸러가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각종 대출이자와 보험료, 공과금을 지불하면 생활비조차도 부족한데 저축을 해야 하나? 이렇게 힘든데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등 많은 갈등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36개월만 버티면 내가 저축한 금액보다 플러스로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악물고 달려왔습니다. 당시 반지하 전세금 3,400만원에 살고 있었는데 2011년도에 주인이 전세금을 2,000만원 올려 달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매달 20만원도 부족해서 어려운 처지인데, 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전세+월세(20만원)로 하기로 했지만 매월 20만원씩 더 부담하게 되어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3 큰아이는 어려운 가정 때문에 대입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모의 무능력으로 아이의 희망을 꺾어버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라고 격려하여 일 년 남은 희망플러스 종료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적립금을 넣고 나서 얼마나 뿌듯하고 내 스스로 대견스럽던지 '아 나도 해냈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복지관에 적립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집 주인을 만나서 희망플러스를 만나게 된 경위와 6월에 만기가 되면 전세금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니, 주인도 흔쾌히 1,600만원을 올려 5,000만원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월세 20만원이 안 나가도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려운 가정형편을 생각해서 몇 년 동안 올리지 않으시고, 전세금액도 1000만원이나 낮은 금액으로 재계약 해주신 주인의 배려 또한 무척 감사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복지재단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어려운 서민이 언제 이러한 목돈을 만져볼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도록 기획하고 운영해 주신 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매달 격려 문자주시고 때때마다 잊지 않으시고 지원해주시는 담당 복지사님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현재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자금대출이기는 하지만 대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실직 중이던 남편도 올봄부터 일을 시작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또한 부족한 가운데서도 20만원씩 적립했던 희망플러스가 끝났지만 저축하던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 매달 20만원씩 적금을 하기 위해 새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희망플러스통장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희망플러스통장으로 얻은 보금자리

희망플러스 참가자 이순남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도 3차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이순남입니다. 3년이라는 긴 여정을 마치고 2012년 12월, 드디어 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적금을 넣을 수 있는 기회는 물론이고, 금융관련 전문 강사님의 강연을 들을 때마다 잘 몰랐던 금융 상식들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월 적금을 넣을 때마다 희망으로 가득한 마음은 은행으로 향했고 매칭금이 적립될 때마다 벽찬 가슴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때때로 대학생인 딸아이가 교재를 많이 구입하는 달에는, 정말 10만원이라는 액수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는 어떻게든 쪼개서 적금만 큼은 어기지 않고 넣었고, 3년 동안 한 번의 누락 없이 만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기되었을 때 비상금으로 절반의 액수를 미리 신청하였습니다. 그때 SH임대아파트 공고문을 보게 되어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비교 분석하여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 후 5백만 원이 넘는 계약금이 필요했는데, 마침 찾아 놓은 희망플러스 적금이 있어서 무사히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1개월 후에 잔금을 치를 때에도 나머지 절반의 적립금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저희 세 가족이 살던 예전 집은 구옥이면서 한옥집이라서 겨울이면 너무

도 추웠고, 여름이면 큰 바퀴벌레가 천장에서 툭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광경을 자주 보며 살았었습니다. 심장이 약한 딸아이는 밤중에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오면 하얗게 질려 있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플러스통장 적립금 덕분에 지금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깨끗하고 공기 좋고, 전망도 좋은 18층에서 바퀴벌레 걱정 없이 편히 잠들 수 있어 너무도 행복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조금 받기는 했지만 지금 매우 만족합니다. 저희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적금을 넣는다는 것은 어쩌면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100%의 매칭금은 저희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감사한 제도에 대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하여 고맙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터전을 잡았기에 희망플러스통장을 활용할 수 있었고 이제는 희망이 보이기에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가난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희망을 향해 열심히 전진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제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망플러스 졸업과 또 하나의 꿈

희망플러스 참가자 신인숙

저는 희망플러스통장 졸업과 함께 적립금으로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임대 APT에 당첨이 되었고 올 1월에 입주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아이들과 잠을 설칠 정도였고, 딸 아이는 자기 방이 생겨 좋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이 아니었다면 난 어찌되었을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더니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디니 이런 좋은 일도 있구나. '힘든 위기와 고난이 와도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나의 긍정적인 생각과 인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릴 적 가난과 도와줄 가족조차 변변치 않아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버텼습니다.

아쉬운 희망플러스통장 졸업과 함께 저에게 작은 꿈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집 장만하기와 늦었지만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가난과 엄마의 부재는 저의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이마에 큰 상처와 원인을 보통으로 1년 동안 병원생활을 해야했고, 아버지는 그렇게 받아낸 합의금을 술과 방탕한 생활로 탕진하셔서 배움에 목말라 있던 저는 학교도 갈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공부를 봐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슴에 묻어두고만 있었던 꿈이 희망플러스통장 만기에 힘입어 제2의 홀로서기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고 방송대에 입학했습니다. "나이 들어 무슨 공부냐", "대학 들어가긴 쉬워도 졸업한건 어렵다"는 주위

만류를 불구하고 입학하여 한국방송대 유아교육과 2학년 재학 중입니다. 작년 1학기엔 2점이 모자라 장학금을 한번 놓치기는 했지만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흐르는 눈물은 스스로를 격려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잘했어 인숙아!' 자신이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만학의 공부라 암기가 잘되지 않아 보고 또 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주말이면 도서관과 책들로 가득한 가방을 메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내 집 장만을 위한 계획으로는 매월 10만원씩 청약통장을 들어 제2의 희망플러스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랴, 살림하랴, 공부까지 24시간을 쪼개 생활하기는 힘들지만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에서 받았던 금융교육과 보험관리를 통해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더 꼼꼼히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엄마를 보고 사춘기 딸아인 옷을 못 사주는 형편을 알았는지 친한 친구의 옷을 빌려 입었다며…….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때도 있지만 같이 어려운 생활을 잘 버텨줘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또한 속 깊은 6살 아들은 반찬투정도 하지 않고 계란밥(계란 후라이와 밥)만 있으면 밥 한 공기 푹딱 맛있게 먹습니다. "충명아! 예지야! 고마워"

힘들고 어려웠던 내 생활의 우여곡절은 끝이 났지만 건강한 몸과 금쪽같은 아이 둘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견디는 삶에서 이루는, 만들어 가는 삶을 살라는 이기수 강사의 교육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희망플러스통장 생활이 그리울 땐 희망플러스 가족들과 찍은 사진을 보며 위로하는 지금, 어떤 이에게는 창업비용, 전세자금으로 각기 다른 용도로 쓰였을 지금, 로또는 운이지만 희망플러스통장은 나의 노력과 인내가 만들어 낸 작품이니 저축이 끝난 후에도 제 가슴속에 영원이 남을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에 기반이 되는 서울형복지사업이 날로 번창하여 사는 게 어려워 꿈조차 꾸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일푼으로 거부가 된 해리포터 시리즈의 조엔롤링은 "삶은 성취보다 더 많은 실패와 상처, 그리고 남모르는 아픔이 있다. 하지만 남이 알아주는 아

픔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다. 진짜 아픔은 남들이 모르는 아픔 중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상처받기를 두려워한다면 삶은 속으로 굽아 갈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제겐 실패도 좌절도 없습니다.

끝으로 희망플러스통장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재단 관계자와 상도복지관 관장님과 희망플러스 담당 복지사님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가슴에 묻어두고만 있었던 꿈이
희망플러스통장 만기에 힘입어 제2의 홀로서기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고 방송대에 입학했습니다”

친절, 배려 그리고 나눔의 희망플러스통장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유석창

삼년 반 전, 부푼 꿈을 안고 희망플러스통장의 문을 두드리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저의 간절한 마음과 형편을 아셨는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젝트인 희망플러스통장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즐기고 경험하고 익혔습니다. 금융교육을 통해 돈 관리와 통장을 관리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강사님의 조언대로 생활비는 CMA통장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썼더니 크지는 않지만 이자가 매일매일 붙었습니다.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볼수록 매일 신났고, 아이들의 용돈관리 통장도 이곳으로 옮기니 아이들의 눈에도 이자 붙는 게 보여서 좋아합니다. 은행을 매달 찾아 간다는 게 조금은 번거로웠지만 붙어나는 이자에 비하면 불편함을 말하는 것은 복에 겨운 소리라 생각합니다. 통장도 명목별로 나눠서 관리하니 뒤죽박죽되는 일이 없어 한결 맘이 편해졌습니다. 또 다른 금융교육을 받고 싶지만 기회가 허락되지 않아 아쉬울 뿐입니다.

또한 희망플러스통장의 객석나눔으로 다양한 문화를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객석나눔은 소극장 연극에서부터 예술의전당까지 여러 장르의 문화공연을 관람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여곡절 끝에 시간에 쫓겨 가게 된 예술의전당은 참 웅장하고 좋았습니다. 관현악단의 연주가 처음에는 조금 지루했었는데, 고기 맛도 먹어본 놈이 안다더니 연주회 음악도 마찬가지로 인가 봅니

다. 생전 처음 듣는 관현악단의 연주가 한 번에 귀에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연주 중 어느 부분에서 박수와 찬사를 보내야 할지도 몰라 헤매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나에게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의 뮤지컬관람도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큰 무대와 장면들의 변화가 소극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음향과 사운드 모두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소극장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소극장은 가까이서 배우들을 볼 수 있고 공간이 작아 집중이 잘되는 것 역시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객석나눔의 가장 큰 장점은 나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니 더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구별 자조모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별미라 생각합니다. 자조모임으로 희망플러스 가족, 꿈나래 가족들의 안면도 익히고 서로를 알아가기에 아주 유용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울려 친목도모하고, 제일 생각나는 것은 2년 전에 용인 케리비안베이에 간적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도착했는데, 입구는 옛날 고성에 나올 법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맞이하였습니다. 마치 동화나라로 들어가듯 그렇게 복지사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고, 자유 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며 놀이기구도 타고 물놀이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조모임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저와 아이들은 케리비안베이라는 곳은 다른 세상의 일이라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제 아이들에게 경험할 기회를 주시고, 즐거움과 추억들을 만들어 주셔서 뭐라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지, 그저 고맙다는 말 외엔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가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또한 예술로희망드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희 큰 아이가 예술로희망드림 씨앗나눔을 통하여 일 년 동안 꿈을 키우며 조그마한 성과도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자주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니던 학원선생님의 개인 사정으로 문을 닫는 바람에 저희 아이도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술로희망

드림에 한 번 더 도전을 하기도 했으나 꿈나무키움은 경쟁률은 정말 높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미술 학원을 꾸준히 다닌 것도 아니고 아직 어리기도 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떨어지고 나니 너무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것은 해 봤으니 더 이상의 미련은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는 아니라 생각하기에 살면서 한 번 쯤은 다시 인연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플러스통장 덕분에 더 넓은 곳으로 이사도 하였습니다. 전에 살던 곳에선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사이가 좋지 않아 많이 힘들었는데 이사를 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이사하기 전에는 전세금이 많이 비싸 망설였는데 지금은 이사하기를 잘 한 것 같아 마음과 몸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방이 생기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희망플러스가 없었다면 지금도 아래층에 산다는 것이 참 제한적이라는 생각에 가슴앓이하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을, 해결방법도 없이 마냥 참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병나는 것을 예방하려고 살아 갈 힘을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하고 글을 쓰다 보니 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체험하고 느끼고 알아가고 깨달은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세삼 느끼게 됩니다. 같이 살고 있는 올 신랑보다 저에게 더 호의를 베풀어주시고 더 많은 혜택을 주신 것 같아 좋으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내 평생에 또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친절을 베풀어 줄 누군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정말 기적처럼 제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허락한다면 제가 받았던 '친절과 배려, 나눔'을 다른 이에게도 '선물'하면서 살 수 있기를 신께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플러스를 마치며

희망플러스 참가자 배아라

3년이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희망플러스통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처음 통장사업을 시작하면서 동사무소에 서류를 내고 합격하기를 기다렸던 시간과 1차 서류에 합격했을 때 기뻐던 순간, 2차에 학교에서 면접을 봤던 그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툭니바퀴처럼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통장사업에 최종 합격 한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려 말을 못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나이 32살, 10년을 넘게 일을 해오면서 월급을 받자마자 며칠 만에 텅 비는 급여통장을 바라보며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생각조차 못할 만큼 하루살이 같았던 내 인생이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조금씩 미래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급여 날만 되면 항상 우울했던 제가 돈이 차곡차곡 모이는 통장을 바라보며 조금씩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모으면 하루살이 같은 내 인생도 나아질 수 있을 거란 부푼 마음은 직장에서도, 집에서 조금씩 변화된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몇 번씩 포기할 상황이 될 때마다 복지관 선생님과 가족의 응원, 격려 속에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마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사업 참여 중 금융교육을 통해 나의 마음가짐과 지출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출목록을 가계부로 적는 습관을 바꿔 꼭 나가야 하는 돈과, 안 나가도 되는 돈을 세부적으로 나눠 돈을 조금씩 절약해서 청약통장도 개설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

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만기가 되어 꾸준히 저축한 20만원은 큰돈이 되어서 통장으로 입금된 날은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그 돈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갚을 수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기 위해 가족들과 평창으로 처음으로 1박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직 보증금 600에 월세 30만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족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통장사업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적금을 시작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장사업을 통해 배운 대로 성실히 일하고 번 돈으로 열심히 모아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희망은 내가 뿌리는 씨앗

희망플러스 참가자 김민재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 삶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결혼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은 늦은 나이에 혜성처럼 나타난 상대와 달콤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시작했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은 생활 속에서 여지없이 부서지면서 내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망가져만 갔다.

돈에 대한 경제개념이 없는 남편은 어떤 돈이 되었든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계획 없이 돈을 써댔고 3년의 결혼생활은 눈덩이처럼 불어 나는 빚과 이 생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삶의 기로가 내 앞에 놓여졌다. 남편의 거칠고 난폭한 성격 또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고, 흔히 아이 때문에 할 수 없이 산다고 하지만 난 아이 때문에 헤어져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건너야하나 막막하고 아득하게만 느껴지던 이혼의 강은 다행히도 수월하게 마무리 되었고, 비록 가장으로서의 치열한 삶은 시작되었지만 결혼생활에서 느꼈던 막막함과 아득함에 비하면 내 노력으로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했다. 다행히 아이는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친정엄마가 돌봐 주셔서 마음이 놓였고, 뭐든 부끄럽고 나쁜 일이 아니면 닦치는 대로 일을 했다. 판매직, 식당서빙, 지하철 택배, 영업 등 참으로 많은 경험들이 이세상은 거저 사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내가 뿌린 땀과 노력만큼 열매를 거두는 과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해주었다. 다행히도 힘들지만 열심히 사는 나에게 고맙게도

주위 분들은 도움을 주셨고, 국가는 한부모가정이라고 빗더미 속에 오갈 데 없는 나와 아이를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해주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받은 혜택은 내가 평소에 아는 국가라는 개념과는 다르게 이렇듯 세심한 보살핌을 베풀어 주었고 나는 염치를 생각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 희망플러스통장이야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나에게 결정적 삶의 불을 지퍼준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하는 실감을 확실히 할 수 있었다. 3년 동안 통장에 저축하며 어려운 사람들의 든든한 후원자인 통장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금융교육을 통해서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던 기회도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나는 만기된 희망플러스통장의 돈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올려 임대료를 반 이상 줄이고 남은 돈으로 아이의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정기적금을 들었다. 나는 지금도 아이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매달 불입하는 돈으로 대학등록금은 물론 해외 어학 연수까지 엄마가 보내줄 수 있으니 열심히 공부해, 너의 이름이 지원임을 잊지 말고 훗날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달라고…….

굽이굽이 여러 고개를 넘어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많은 일들을 통해 세상에 순리와 진리는 같은 것끼리 모인다는 것을 알았다. 늘 불평불만 하는 사람은 또 다른 불만이 생기는 일만 생기고,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살길이 열리는 기회와 운을 알아보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할 세상이 물질로 평가되는 세상으로 바뀌면서 진정한 삶을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결코 돈이 아니며 돈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다. 오늘도 나는 하나뿐인 딸과 TV의 코미디프로를 보면서 기상천외한 해석과 뒷담화를 하며 마냥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기에 작게나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려고 한다.

그것이 그토록 어렵고 힘겨운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방향등이 되어주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서울시와 이웃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며, 또 그러한 나를 통해 보고 익힌 우리 아이가 또한 그 몫을 충실히 해줄 것을 믿기 때문이다.

“매달 불입하는 돈으로 대학등록금은 물론 해외 어학 연수까지 엄마가 보내줄 수 있으니 열심히 공부해, 너의 이름이 지원임을 잊지 말고 훗날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희망플러스와 나의 창업이야기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이정희

내가 희망플러스통장을 시작한 것이 2009년 9월이었다. 같은 해 6월에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8월에 면접을 보고 최종합격 하기까지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당시 힘든 내 생활의 변화를 위한 필요한 통장이었기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나의 진실함과 절실함이 합격이란 좋은 결실을 안겨 주었다. 우리의 인생에서 30대와 40대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자신의 삶에서 최대의 활동기라고 말한다. 나 또한 그런 중요한 시기에 열심히 노력하면서 앞날을 위해 뛰었다. 그러한 노력이 의미 없이 끝나고 말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에 대해 닦쳐오면 어려움에 좌절하고 또 그 마음을 추스르고 새로운 일로 도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나도 인생을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 않는 30대 초반에 남편이 IMF라는 최대의 금융위기로 실직했고 그때부터 정직원으로 일하면서 월급통장에 매달 꼬박 꼬박 돈을 넣어 주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결혼 후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하는 일은 잘되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내게 짐을 안겨주는 그런 생활들의 연속이었다. 게다가 주식으로 묶어둔 돈이 종이가 되어 빛까지 짊어지고 내게 손을 벌렸을 때는 ‘미움’이란 단어가 마음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러 가지 일로 남편에게서 돌아선 마음은 많은 상처로 예민해져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것 같아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길을 가다가 게시판에 쓰여 있던 '희망플러스통장'이라는 반가운 사업을 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내 적은 월급을 쪼개서 통장 저축액을 넣을 수 있을까?'하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이대로 쓰러진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삶에 대한 반감이자 슬픔이었기에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접수했는데 서류심사 합격이라는 좋은 소식을 받았다. 서류전형에 합격하자 힘을 얻어 면접을 보러 가는 날도 웬지 좋은 예감이 왔다. 면접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며 나보다 젊은 사람, 내 또래의 사업 실패자, 나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 하면서 아직 젊고 건강한 나를 되 돌아보며 용기를 얻었다. 비록 외벌이 130만원 남짓한 내 월급을 남편의 은행이자로 반을 떼어내고 두 아이를 키우고 게다가 남편용돈까지……. 생활은 정말 힘든 상황이라 내가 매달 저금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면접관이 "현재 3,500만원의 빚이 있는데 저축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의문을 제기 하였을 때 당당히 "네 잘 할 수 있습니다"라는 약속을 하였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적금을 넣으면서 그때 잠시 가졌던 불안감은 나의 걱정에 불과했고 끝까지 한 번의 낙오 없이 만기를 채웠고, 창업자금의 일부로 사용하던 날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던지! 그렇게 면접관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혹시나 탈락한다면 인생의 실패인 냥 간절했던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전달되어 좋은 결과를 주신 것 같다. 또한 그때의 아픔을 잘 이겨내고 살아왔기에 3년이 더 소중한고 이후 내 인생의 설계도를 잘 그려가고 있다.

돌아보면 48년을 살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시련을 겪은 것 같지만 지금은 웃으면서 이 글을 적고 있다. 내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잘 선택한 일이 희망플러스통장에 가입한 것이며 그로 인해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기에 힘든 오늘을 사는 나를 위로한다. 살면서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온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자세와 의지가 있다면 분명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일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내 자신의 문제를 점검하고 더 나은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 삶의 좋은 에너지로 전환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 성공이란 남이 아닌 자신만이 해 낼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 현재 나는 2010년 2월에 어린이집을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물론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들면서 초기와는 달리 운영이 잘되어 원아모집으로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 처음 창업을 했을 때는 적은 원아 수로 인해 75만원의 월세와 관리비, 공공요금, 직원 임금 등을 합치면 늘 적자였지만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시간 연장을 원하는 직장 엄마들을 위해 저녁시간 연장반을 운영하였다. 정부에서 60시간까지 무료로 지원해주며 본인부담금은 없이 저녁식사와 아이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직장 맘을 위한 제도인 동시에 나에게도 적자를 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면서 월세 부담도 조금씩 줄어들어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어린이집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그곳에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인도 그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팔고 싶어 했으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매매가 어려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림을 합쳐서 그 집으로 들어온다고 집을 비워달라는 것이었다. 2년 계약이었기에 작년 3월에 불가피하게 내 집을 사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전에 내던 월세만큼 은행대출금 이자를 내고, 평수도 41평에서 34평으로 줄었기에 관리비와 공과금이 줄어 오히려 생활하기엔 이전 보다는 훨씬 나은 형편이 되었다. 그래서 이자를 내고 남은 돈을 모아 원금을 갚고 있다. 첫 시작이 힘들었기에 지금도 내가 가진 돈보다 은행에서 빌린 돈이 훨씬 많기는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또한 하루아침에 큰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에게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교육을 철학으로 삼고 있기에 당장 힘들지라도 앞으로 좋은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토요일인 오늘도 두 명의 영아들이 응원하는 것을 반갑게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삶이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즐거움이다. 그 즐거움을 매일 매일 느끼

는 한사람으로 지금껏 나의 삶의 한 부분을, 현재 생활이 힘든 여러분 앞에 살며시 소개해 본다. 물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것은 변화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날에 다시 만나 지금의 얘기를 나누며 맘껏 웃어 봅시다. 모두 힘내어서 그날을 기약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잘 선택한 일이 희망플러스통장에 가입한 것이며 그로 인해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기에”

희망플러스와 함께한 3년, 내게 남은 것들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김선희

처음 희망플러스를 접했을 때 정말 좋은 제도인데 나오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우리 가족보다는 가정형편이 나은 사람, 조금이라도 저축을 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주변에서 저축가입을 한 사람들을 보면 ‘저축할 수 있으니 좋겠다’ 부러워만 했다. 그러다 주변에서 늘 힘이 되어주는 언니의 권유로 처음 희망플러스를 신청하고 면접을 보러 갔었던 게 바로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3년이 짧은 기간일수 있지만, 현재 나와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관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질문은 “만약에 저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저축을 아무리 어렵더라도 만기까지 잘 불입하라는 당부이기도 했다. 그때 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축은 꼭 불입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며 다짐을 했다. ‘절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저축은 꼭 만기까지 해보자!’ 한 달, 두 달 저축을 하고 금융교육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저축은 남은 돈으로 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나의 생각이다. 그러나 처음 교육을 들었을 때 ‘저축금액을 먼저 떼어 놓고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을 하면 계속 마이너스가 돼서 결국 저축액으로 대출을 갚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했었는데 그것 또한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다.

두 번째로는 언제나 수입이 적다는 생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오는

대로 쓰고 모자라면 빌려 쓰고 갚곤 했던 지출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 지출목록을 작성해서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류하고, 낭비되는 부분을 조금씩 정리하고, 꼭 필요한 돈은 따로 모았다가 사용하니 가정경제가 안정되었고, 수입이 적어서 저축을 못한다는 나의 편견이 깨지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객석나눔과 자조모임을 통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우리 가족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는 것이다. 문화생활이라고 하면 왠지 거창하고 우리 가족과는 먼 얘기라고 생각 했는데 객석나눔을 통해 처음으로 음악회도 가게 되니 너무 좋았다. 물론 음악회도 좋았지만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었다. 이전에는 바쁘고 돈이 없어 가족이 함께 할 시도조차 못 했는데,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온 가족이 뮤지컬을 보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웃었고, 자조모임을 통해 놀이공원에서 신나게 뛰어 다녔다. 가족과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희망플러스와 함께한 지난 3년을 돌아보면 나와 우리 가정에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늘 어려운 가정이라는 생각을 버렸고, 불필요한 지출들을 줄여 가정경제 규모가 안정되었고, 이제는 통장보다 더 많은 금액의 저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가정의 또 다른 희망플러스가 될 것이다. 희망플러스와 함께 우리 가족은 더 많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더 많이 웃을 수 있었고, 더 많은 꿈들을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꿈을 꾸게 되었다. 희망플러스와 함께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 나처럼 모든 것이 부정적이었던 이들도 용기를 내서 희망플러스와 함께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더 많아지길 소망해본다.



희망과
꿈을 키워
2013

꿈나래

P A R T

2

꿈나래통장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꿈나래통장 참가자 김연정

2009년 12월에 처음으로 꿈나래통장을 알게 되면서 저는 참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꿈나래통장을 통해 좋은 경험과 추억들을 많이 쌓게 되었습니다. 작게는 복지관을 통해 여러 소소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케이크도 만들고, 갯벌체험에서 조개와 꽃게도 잡고, 모래 위에서 줄다리기도 하면서 좋은 추억도 쌓았고, 크리스마스트리도 만들고, 크라제버거도 꿈나래를 통해 처음으로 맛을 보았습니다. 재무설계를 받으면서 지금 우리 가정의 재무상태도 점검하고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거래와 대출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런 작은 일 말고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도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2011년 10월 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허니문 특별여행을 통해 신혼여행을 사이판으로 다녀왔습니다. 대상자는 꿈나래통장 참가자 중 신혼여행을 가지 못한 부부였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신혼여행으로 사이판을 갔다 왔네, 팜을 갔다 왔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 늘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꿈나래통장 카페에서 사이판을 보내 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복지관 선생님께 추천서를 받아 사연과 함께 복지재단에 제출했더니, 다행히 당첨이 되어 저희 부부는 사이판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사건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신혼여행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고, 스노클링을 하면서 바다 속 물고기도 구경하고, 사이판의 자랑인 크루즈를 타면서 스테이크도 먹고, 배 위에서 낭만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멋진 야경을 구경하였습니다. 큰 극장에서 마술 구경도 하고……. 결혼 13년만의 외출!!! 살짝 결혼 생활이 무료해 지러던 찰나에 단둘이, 그것도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니 감회가 새롭고 참 좋았습니다. 마지막 날 혼인서약을 하면서 아내와 다시 결혼하는 것 같아, 그동안의 고생을 모두 잊을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씨앗나눔입니다. 저희는 세 아이가 있는데, 둘째 아이가 월드비전이라는 합창단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만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꿈나래카페를 통해 씨앗나눔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선정 되어 1년 동안 교육비를 지원해 주셔서 합창단을 무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시기에 힘이 되어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꿈나래카페를 통해 복지관이나 협회에서 진행하는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삶에 지쳐 힐링이 필요한 가족을 콘도에 모아 놓고 미술치료와 연극치료, 심리치료 등……. 가족들이 삶을 맞대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모든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가족의 내부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을 보면서 우리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신선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혜택을 맛보게 되니 저는 절로 꿈나래카페를 자주 들어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도 다른 혜택은 없나? 하면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3년동안 꿈나래통장에 참여하면서 물질적인 혜택 외에도 심리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 통장에 저축 한 돈이 차곡차곡 쌓여 가는 것도 너무나 뿌듯하고, 남들에겐 작은 돈이 될 수 있는 그 돈이 내게는 너무나 크게 느껴져 내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 같

아 기쁩니다. 우리 가정에 복으로 다가온 ‘꿈나래통장’을 통해서 우리 딸 둘은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꼭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 통장을 통해 복지관과 인연을 맺다 보니 선생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움을 주시고, 장학금도 추천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은 그 돈으로 열심히 영어 학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의 학비마련을 위해 한 발짝을 내디뎠을 뿐인데, 이 통장은 제게 너무 많은 것으로 돌려주어서 어찌 이 보답을 다해야 할지.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혜택을 나누어 받으시고, 꿈나래통장을 통해 꿈도 키워 가시길 바랍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그 돈이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돈 뿐만이 아니라 같은 마음과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공간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삶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꿈나래통장 참가자 김민정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도 꿈나래통장을 시작한 가입자입니다. 통장 가입과 비슷한 시기에 한부모가 된지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가장이 되어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당시 둘째 아이만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큰 아이까지 보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직장을 구하려 노력중입니다만 삶은 결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마음의 감기 또한 좋아져 현재는 큰 아이와 같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꿈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꿈나래통장을 접하게 되었고 가입하면서 지금까지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늘 적금을 불입하고 나면 생활이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하나 망막하기만 했습니다. 통장 저축하는 중간에 힘들어 그만 두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를 악물고 3년을 버텨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꿈이 하나 생겼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는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두 아이의 공부방을 마련해 주고 싶은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어렵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책상이 들어갈 방 하나가 생길 그날을 기도하며 저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나의 든든한 뒷심, 꿈나래통장

꿈나래통장 참가자 김윤환

매월15일은 월급날!!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개인회생채무변제와 꿈나래통장에 입금을 하는 것이다. 재취업에 성공한지 올해로 7년째!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해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5만원의 집으로 이사를 했다. 월세 지불하는 날은 너무도 빨리 다가왔다. 집에서 부업도 해보고 청소일도 해보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게만 느껴졌다. 지금의 직장은 큰딸 출산 전까지 다니던 직장이다. 그전에도 몇 번 다시 나와 일할 수 없겠느냐며 연락이 왔었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고 사양하던 곳이다. 감사하게도 이일저일 전전하던 내게 다시 요청이 왔고, 당연히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어느덧 오늘에 이르렀다. 남편은 몸이 좋지 않아 직장생활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끔씩 일을 하기는 하지만 가정경제를 책임질 만큼은 되지 못한다.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내게, 직장이 있다는 건 정말 아주 많이 감사한 일이다. 그렇지만 혼자 벌여 여섯 식구 생활하기란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저축을 한다는 건 정말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 처음 '꿈나래통장'을 알게 되었을 때 가정 먼저 신청서를 냈지만 안타깝게도 낙방을 했다.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이다. 낙담을 하고 있던 차에 남편 명의로 가입을 할 수 있겠다 싶어, 2009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받아들여져 꿈나래통장 식구가 되었다. 어려워도 가장 먼저 지출항목으로 설정해 놓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온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그러던 중 지난번 살던 집보다 조금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2년 전에는 전세 재계약날짜가 다가오면 불안감에 가득이나 소극적인 A형인데 새가슴이 됐다.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까?, 이사 가라고 하면 어찌지?' 불안해진다. 몇 년 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 정말 막막했다.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없는 사람에게 하루하루를 산다는 건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다. 힘주어 걸어도 안 되고 잘못 디려도 안 되는 그런..... 하지만 이번엔 걱정 없다. 내겐 꿈나래통장이 있으니깐!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힘을 내자. 힘들어하는 내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줄 내 뒤의 든든한 백, 꿈나래통장은 소극적이고 자신 없어하던 내게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꿈과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꿈나래통장"이 되어 주길.....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꿈나래통장 참가자 이명옥

살가운 인사를 하고 현관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없는 행복감을 느낀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마음의 평온을 찾고 아이들과 오손도손 살 수 있게 된 것도 5년 전 꿈나래통장을 시작하고부터 인 것 같다.

결혼을 하고 큰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전부터 도박에 빠져있던 남편은 결혼 후에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가정에 소홀했다. 심지어 월급에 손대기 시작하더니 가출을 하기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눈·코·입 어느 곳 하나 예쁘지 않은 곳이 없는 큰아이였지만 두 돌이 되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해 찾아 간 병원에서는 50% 자폐증상이 있다는 것이었다. 임신했을 때 행복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컸던 내 탓인 것만 같았다.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좌절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

그 와중에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남편을 믿기보다 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으로 특수교육실에 아이를 맡기고 여성가장훈련을 받으며 힘든 날을 보내던 중, 뜻밖에 내 몸에 이상한 증세를 느꼈다. 늦은 나이에 둘째아이를 가진 것이었다.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남편을 붙잡고 아 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맹세를 듣고 또 듣고 난 이후에야 태교를 하며 열심히 앞날을 준비했건만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가출을 반복하며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전세로 있던 집에 보증금을 올려줘

야 하는데 돈이 없어 쫓겨나게 될 형편이었다. 다행히 동사무소 직원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가 있었다. 주거문제가 해결되어 다소 안정을 찾았지만 큰아이의 특수학교와 작은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등 모든 게 만만치가 않았다. 일찍 철이 든 작은아이가 엄마를 안으며 자주 “엄마 사랑해”라고 말을 하면 나는 “정말 그렇게 엄마가 좋아?”하고 물어 보니 아이는 그렇게 말을 해야 엄마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늘 불안하기만 한 현실에 지쳐있는 엄마, 이것이 아이의 눈에 비친 엄마의 모습이었구나. 아이를 껴안고 속으로 울고 또 울었다. 이젠 늘 너에게 웃는 모습만 보여 주리라 다짐을 했다. 그 다짐을 누가 듣기라도 한 것처럼 뜻밖의 행운이 우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아파트 현관 게시판에 꿈나래통장 신청공고가 붙어 있었다.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어 곧장 동사무소로 달려가 신청을 했다. 그 후로 꼬박 4년의 시간이 흘러 우리 아이의 통장에는 남부럽지 않은 금액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남들에게는 푼돈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겐 꿈이요 희망이다. 꿈나래통장 덕분에 자조모임에서 예쁜손글씨 POP를 배워서 아이 방문에 걸어두었더니 보는 사람마다 예쁘다고 칭찬 일색이고, 송암천문대에서 아이들과 나란히 누워 별자리를 바라보며 미래를 그려 보기도 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재무상담까지 받아 적은 돈이지만 또 다른 통장에 예금하게 되니 얼마나 뿌듯한지 모른다.

글쓰기를 잘하는 아이가 복지재단의 객석나눔으로 신한카드 글그림축제에 참가해 당선되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서 감사했고 사례기관 선생님의 도움으로 본사랑재능장학금도 받아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맘껏 사줄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지금도 아이 방에 꽂혀 있는 책들을 보면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온다. 이 모두가 꿈나래통장이 우리에게 누리게 해준 행복이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둘째아이는 사교육 없이도 복지관에서 공부하며 중간고사 성적 평균 90점을 받았다. 아들 친구들이 엄마들에게 학원 안다니며 스스로 공부하는 우리아들과 비교 당했다고 할 때, 혼자 제 할일을

알아서 잘해주는 아들이 대견스럽고 기특하다.

“엄마 꿈나래통장이 있어서 든든해요” 언젠가 작은 아들이 내게 한말이다.
“그래 아들이 엄마는 그런 네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비록 남들보다 부족하지만 환한 미소와 애교로 엄마에게 기쁨을 주는 큰 아이와 학교생활과 운동을 잘하고, 사교적이며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모범생 작은아이가 있기에 오늘도 엄마는 행복하단다!

꿈나래통장의 알곡들

꿈나래통장 참가자 강희정

돌이 지나지 않은 둘째를 등에 업고 서울시복지재단으로 교육을 가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통장을 시작한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번의 고배를 맛보고 아쉬워하던 차에 다시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얼른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꿈나래통장’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내가 저금한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적립해 준다는 것 밖에는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저금한 금액과 같은 액수를 그냥 준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반신반의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작은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은행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라는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곳이라 조금은 마주하기가 껄끄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꿈나래통장도 이런 은행들과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라는 단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고객과 은행이라는 딱딱한 관계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기우였습니다. 꿈나래통장은 지금 우리 가족에게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꿈나래통장 참가자들은 1년에 한 번 금융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이 금융교육이라는 것이 제목에서 느껴지는 딱딱함과 달리, 서민들이 알아야 할 채무제도나 대출과 관계된 여러 지원제도 등,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들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니, 교육을 듣다보면 '내가 돈에 대해 너무 무지했구나!'하는 반성과 함께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또 한 달에 한 두 번씩 좋은 공연이나 전시회 등이 있으면 담당 복지사가 항상 문자로 알려주시니, 평소에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질 좋은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 둘째 때문에 좋은 공연이나 전시회 등을 매번 놓치게 되어 아쉬워하던 차에, 작년에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케이크 만들기'라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꿈나래통장 참가자들과 함께 하는 자리여서 더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63CITY도 다녀왔는데, 무척이나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 엄마로서 더욱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객석나눔을 통해 다양한 공연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 감사하기는 하지만, 신청 가능한 인원이 보호자를 포함한 동반 1인이 많아서 둘째를 데려가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람 가능한 나이도 높은 편이라 엄마 입장에서 어린아이를 떼어놓고 가기도 힘들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아이들 모두와 함께하는 자리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연락을 주시는 복지사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꿈나래통장 가입자들만의 카페를 통해 같은 꿈을 키워가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무척이나 든든하고 의지가 됩니다. 단순한 인터넷 상의 회원이 아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준 점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커가는 아이를 바라보듯이, 한 달, 두 달 통장에 늘어가는 숫자들을 바라보며 5년 후의 소중한 미래를 꿈꿔 봅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꿈나래통장을 통해 또 다른 희망을 꿈꾸고 열매 맺기를 기원해봅니다.

시련과 좌절, 고통 대신 노력과 희망, 행복으로 CHANGE

꿈나래통장 참가자 김선미

'엄마, 달리기 시합이다. 준비 시~~~작'

오늘도 어김없이 달리기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어린이집 문을 '딩동'하는 재미를 차지하는 시합! 달리기 시합을 시작한지도 벌써 2년째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는 저 혼자 했었는데, 이젠 아이가 제법 커서 먼저 시합을 제안하기도 하고, 우리 둘의 게임이 되었습니다.

저는 싱글 맘입니다. 제 나이 28살에 아이를 임신하고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열 달이 지나 아이와 만난 엄마입니다. 지금은 중절수술이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제가 아이를 출산할 그 시기에는 아이를 포기하는 엄마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벅차고 좌절되기 때문이겠지요. 저의 가족들조차 반대했던 아이를 낳기 위해 미혼모시설에 입소하였고, 기다림 끝에 아이와 만나게 된 게 2009년 4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의 일입니다.

그 후로 저의 시련이 시작되면서 인생은 달려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심장질환(동맥관 개존증)으로 혈관 중간에 구멍을 막아주는 수술이 필요했고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상담을 통해 수술비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된 아가의 몸에 주사바늘이 닿는 순간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흐르던지, 죄책감과 미안함이 지금까지도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축하와 예쁨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좌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수술 후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희망을 얻었고 제 자신이 나약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위한 준비로 3개월의 취업교육과정으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우리 아가는 무럭무럭 자라 7개월이 되어 기어 다니기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입으로 탐색하는 아이가 마냥 사랑스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냉담한 저의 부모님과 친척들에게는 아이의 사랑스러움을 보여줄 기회조차 없어 속상했습니다. 미혼모 시설 퇴소를 앞둔 상황에서도 가족들은 저희를 포용해주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의 시련으로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엄마가 된 이상 아무것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살 곳을 찾다가 모자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3~4번의 상담 끝에 3년 동안 지낼 저희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던지! 종교도 없는 제가 하느님께 기도와 감사드렸던 그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자원으로 이사하던 날 미혼모 시설의 선생님들께서 격려와 용기를 듬뿍 주셨던 그때가 2009년 11월 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정말이지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아이를 보낼 어린이집과 자격증 취득으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동사무소 직원과 상담을 하는 중에 꿈나래통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마침 신청기간이라 ‘아이의 꿈과 희망을 함께 키워준다’는 그 문구에 바로 신청하게 되었고 저의 정성 덕에 꿈나래통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면접도 성공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입사하였고 3년간 직장생활을 하는 워킹맘이 되었습니다.

꿈나래통장을 가입하면서 가입대상자들을 관리하는 공동복지관을 안내받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과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이내 밝은 표정으로 반겨주시는 인사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조모임을 통해 서로의 어려움이나 해결방법을 나누는 방법도 알게 되었고, 1년에 한 번씩 금융교육을 통해 자산관리나 부채관리에 대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덕분에 소소하게 저축되는 통장을 보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몇 달 후에는 아이명으로 통장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객석나눔에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라는 발레공연을 신청했습니다. 동대입구에서 국립극장으로 가는 내내 마냥 신나하는 36개월 된 아이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발레를 보며 토끼가 춤을 춘다며 좋아하던 아이가 한마디 하였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러 오자~”, 엘리스보다 토끼가 더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또 한 번은 놀이동산 이용권을 복지관을 통해 신청했습니다. 저도 안 가본지 5년이 지나 설렘으로 아이와 함께 했습니다. 네 살이 된 아이는 놀이동산을 처음 보자마자 탄성을 지르더군요.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는 뒷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우리는 그날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집에 가게 될 정도로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야구경기를 보기위해 대중교통으로 목동운동장을 찾아가는 것은 힘들었지만 가는 동안 야구에 대해 설명해주니 기대되면서 다섯 살 된 아이가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야구장에 도착해서 복지관 선생님과 인사 후 입장하면서 쉬지 않고 질문하는 아이 덕에 2회 경기 때부터 저는 지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피곤이었지요. 이렇게 간간히 진행되는 객석나눔이나 후원에 감사하며 지낸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불현듯 생각나서 통장을 확인했더니 저축금액이 300만 원이 조금 안되더군요. 매달 7만원씩 저축하면서 만기가 되면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비로 어찌 쓸까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하기 어려운 고민이지만 한해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를 보며 행복한 고민에 빠진 제 자신은 오늘도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33년을 살아오면서 아이와 함께한 최근 5년이 저에게는 매우 귀중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사춘기 때보다 더 많은 고민을 했고, 제 인생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순간이었고, 이성 친구를 사귀던 시간보다 더 설렘과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제 선택으로 아이는 한부모가족이 되었지만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엄마를 보며 아이 또한 행복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를 위한 위로일지 모르겠지만 이 위로를 발판삼아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약속한 놀이터 데이트! 좋아하는 사람 단둘이서 놀러 가는 것을 데이트라 알려줬더니 그 새 데이트 신청하는 제

아이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다섯 살 딸내미입니다. 꿈나래통장과 공동복지관을 몰랐더라면 저희가 어찌 즐거운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련과 좌절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지내다가 자포자기 하지 않았을까요? 참 다행입니다. 저의 노력과 세상의 희망으로 저희 행복을 만들 수가 있어서 말입니다.

꿈나래는 계속된다

꿈나래통장 참가자 박은영

서른이 되던 해, 가난한 신학도인 남편과 작은 방 한 칸을 마련해서 시작한 결혼생활은 주변인의 걱정과 염려를 뒤로 하고 그야말로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고통 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자는 소중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 아이가 생기면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아이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현실 앞에 가슴 한편의 쓰라림을 지울 수 없었다.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아직 전공과정이 남아있는 신랑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고,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도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제왕절개 수술로 인해 우리가 가진 통장의 잔고는 0원! 게다가 아이를 낳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연찮게 알게 된 꿈나래통장은 아이에게 작게나마 무엇을 해 줄 수 있다는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선물과 같았다. 부른 마음으로 신청했지만, 신랑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받는 적은 사례비로는 매달 7만원을 저금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조금만 더 아껴보자'라는 새로움 결심으로 우리 부부는 함께 꿈나래통장 첫 발을 내딛었다. 받은 통장을 가슴에 안고 몇 번을 쓸어내리며 감사함과 웬지 모를 뿌듯함에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반복했던 그날을 어찌 잊겠는가! 일 년에 한 번씩 금융교육이나 재무컨설팅교육을 통



해 얻은 교훈과 도전은 우리 가정에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사실, 가정의 가계를 지혜롭게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것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지, 우리처럼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에 당장 내일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나름 젊고 순수한 우리 부부는 꿈나래통장을 시작하면서 당시 80만 원 정도의 남편 월급을 세분화시켜 지출서를 작성하고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생활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꿈나래통장을 발판으로 시작된 또 하나의 꿈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시작이었다. 신랑은 금융교육을 받고 온 날이면 듣고 느꼈던 교육내용들을 상세히 전해주고 종종 토론 아닌 토론도 하면서 우리 가정의 경제를 조금씩 세워 나갔다. 조금 지칠 때쯤이면 교육을 통해 다시금 도전받아 적은 돈으로 우리 세 식구가 제법 체계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 갈 수 있었으니 정말 감사할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쓰고 남은 만큼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우리 가정 형편대로 세워놓은 가계부에 맞추어 사는 것이 조금 불편해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내려놓다보니 별로 아쉬울 게 없을 만큼 되었다. 그리고 하나를 써도 잘 써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 나름 대로의 새로운 꿈나래를 만들게 되었다. 아이뿐만 아니라 칠십 인생을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신 양가 어머니를 위해 부족하나마 따로 조금씩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듯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꿈을 향한 기쁨을 안겨 준 꿈나래통장에게 감사한다.

이제 내년이면 꿈나래통장도 마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꿈나래통장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 가족의 희망도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이에게 멋진 옷, 좋은 음식은 사주지 못하지만, 밝은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는 다섯 살배기 우리 아들의 가슴에도 꿈이 자라고 있음을 믿는다. 텅없이 모자란 용돈에서 한마디 불평도 없이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가정을 이끌어주는 멋진 신랑은 나의 멘토이자, 같은 꿈을 꾸는 나의 동역자이다. 그리고 이런 행복한 가정에 또 다른 기쁨을 가지고 태어날 우리 소중한 둘째 아이까지, 우리 가정의 꿈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 부부가 처음 가정을 이루었을 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는 '행복지기와 평생지기'가 되자던 그 꿈을 향해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있음을 믿는다. 오늘도 내일도 한걸음 한걸음을 힘차게 내딛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꿈나래를 소중히 키우고 그 꿈나래를 다시금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으라차차~~ 파이팅!!



새로운 즐거움이 있는 곳 꿈나래통장

꿈나래통장 참가자 장미애

꿈나래통장에 가입하고 둘째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례기관 선생님께서 가정방문 오셔서 상담을 하다가 자조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육아에 지쳐있던 나는 호기심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첫 만남이라 어색하기도 했지만, 레크리에이션으로 모임을 시작하면서 굳어있던 나와 아이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경험을 했다. 그 뒤로도 매달 정기모임은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되었다. 냅킨아트, 차 만들기, 피자 만들기, 공원나들이, 율놀이, 과천과학관, 영화 관람 등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활동들은 너무나 즐거웠다. 평소에 나들이 가자고 하면 잘 움직이지 않던 남편이 자조모임이라고 하면 모든 일정을 맞춰 줄 정도였다.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자주 보는 사람들이기에 더 정이 가고 마음이 편해져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도 들을 수 있어서 매번 모임이 기다려진다. 카페를 통해 타 지역 사람들과 아이 물건들은 얻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면서 보람도 있고 뿌듯했다. 카페를 보면 '우리 사는 세상'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서로의 얼굴은 잘 모르지만 기쁜 일, 슬픈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마음의 위로와 안정이 된다. 내 속에 말 못 하는 고민들과 투정들도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하며 바라봐주고 한 줄의 댓글로 좋은 말을 남겨주는 이 공간이 정말 소중하다.

비록 아이가 커가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가지만, 카페에서 얻은 육아 교육정보들이나 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신혼부부

전세임대나 정부양곡지원을 알게 된 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첫 아이로 이름으로 가입한 꿈나래통장을 통해 여러 체험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둘째와 셋째도 함께하고 있어서 나에겐 더 특별한 곳이 되었다.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계속 되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보다 현재 갚아야 하는 빚과 먹고 사는 게 더 우선이 될 수 있겠지만, 꿈나래통장을 통해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교육이나 체험(문화 활동) 등 많은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아가려고 한다.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 부족함 속에서도 당당하고 밝은 모습으로 오늘도 미소 지으며 힘내어 본다.



작은 꿈으로 삶의 변화 만들기

꿈나래통장 참가자 이원빈

‘2013년 희망과 꿈을 키워요’ 스토리(수기) 공모에 저의 얘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혹시 저의 이야기를 보시고 작은 변화로 꿈을 꾸게 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게 될 거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적어봅니다.

현재 저의 나이는 42세이며 예쁜 딸아이는 13세입니다. 2004년 5월, 4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한 푼 없이 양육비도 포기하고, 3천만 원짜리 전셋집에 대출금 2천만 원을 떠안고 말입니다. 직장이 없던 터라 삶이 막막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찾은 것이 경리학원이었고, 다행히 아파트사무실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90만원 조금 넘는 수입으로 전세대출금과 아이 유치원 비를 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저의 입장에서 90만원은 참 큰돈입니다. 어떤 도움이든 아쉽지만 한 저였지만,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던 거 같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서도,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미래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이 어이없게도 모든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마냥 돈 아껴서 빚 갚고 애 키우고 그렇게 절약하는 것만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박복한 팔자 타령만 하면서 말이지요. 시간이 흘러 전세금이 자꾸 올라 이사를 계속 다니

다보니 2010년도에는 5천2백만 원짜리 전세로 이사를 하면서 빚은 2천7백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사정모르는 사람들은 왜 빚만 늘었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월급으론 천만 원 모으기는 엄청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핑계일지도 모르지만 ‘작은 목표라도 있었더라면, 그래도 조금은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하고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제 삶 중심엔 딸아이의 미래가 가장 중요한데 ‘이러다가 아이가 좋은 대학에 붙어도 보낼 수가 없겠구나, 언제 대학등록금을 모아놓나?’라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오고 포기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떠올리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꿈나래통장을 알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참가신청서를 냈습니다.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언제 되는 거냐?’ 등등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도 안 되는데 나같이 복 없는 사람이 되겠어?’라는 생각에 기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청하자마자 단박에 꿈나래통장 가입자가 되었습니다. 박복한 저에게 2010년 꿈나래통장은 미래와 꿈을 만들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 가슴이 떨리는 순간이라는 걸 아마도 남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친구들과 친정엄마에게도 소식을 전하면서 “나에게도 복이 있었나봐. 진짜 웃기게 들리겠지만, 나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남들은 그게 뭐 얼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겐 미래가 생기고 꿈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아이 대학등록금이 모인다고 생각하니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면서 푼돈이지만 3만원짜리 적금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생활에 활력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도, 그때를 생각하니 가슴이 찡합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직장도 옮기고 월급도 올라 돈은 모았을지 모르겠지만 꿈이 생기진 않았을 겁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던 저에게 또 한 번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싶어 하는 딸을 위해 예전에 다니던 피아노학원을 찾아가 레슨비를 좀 깎아 주십사 의논하고 오는 중에 복지관 선생님을 만나 <예술로희망드림 씨앗나눔>을 알게 되어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우리아이가 1년간

고마워, 꿈나래통장

꿈나래통장 참가자 이현숙

무료로 피아노를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딸 수민이는 기쁜 마음으로 피아노 치고 있습니다. ‘나는 행운아’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며칠 전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우리 집은 돈은 없지만, 마음은 부자지”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도움 받았다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 것에 감사하기에 글을 쓰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게 되면서 저는 딸에게 해 줄 말이 생겼습니다. “수민아 너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남들에게 네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복 많은 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참, 저와 저희 딸은 예술로희망드림을 하게 되면서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픈 마음에 유니세프에 정기적으로 기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변화된 모습을 전해드리고 싶어 글을 시작하긴 했는데 글재주가 없어 충분히 표현이 안 되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활하기에도 녹록치 않은 우리 형편에 아이의 교육 준비는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았던 시기에 찾아온 꿈나래통장! 통장 가입자 선정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흥분되어 밤새 뒤척이던 기억이 생생하다. ‘7만원씩 매달 모아 언제 목돈이 될 수 있을까?’ 한 페이지도 채 안 넘어간 저축통장을 이리저리 넘겨 보고, 한참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한숨 쉬었던 적도 여러 번……. 아마도 꿈나래통장이 아닌 일반 적금이었다면 중간에 그만두었을지도 모른다. 맞벌이하던 내가 3년간 수술을 두 번이나 받고 일을 쉬므로 해서 아빠의 월급만으로 4인가족의 생활과 병원비 감당을 해야 하는 우리 가정에 월7만원은 작지만은 않은 돈이었다. 아마도 내가 저금한 돈만큼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정성을 다해 저축했던 거 같다. 그렇게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저금한 돈이 252만원, 서울시에서 지원해준 돈이 또 252만원, 벌써 500만 원 정도 아이의 교육자금으로 모으고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든든하고 가슴 벅찬지! ‘하면 되는구나!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구나…….’ 생활하기에 정신없던 내가 이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게 되었다. 그래서 꿈나래통장과 더불어 우리 가정의 앞날까지 생각하고 계획하게 된 것이다. 꿈나래통장에서 함께 했던 여러 프로그램들, 특히 연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어 먹었던 일, 가족체험 나들이로 임실 치즈마을에 가서 치즈로 피자도 만들어 먹고, 레일썰매 타며 즐거웠던 일 등 가족과 함



께 했던 그 시간들은 덤으로 가슴 한편의 추억으로 저축한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지 않은 내가 꿈나래통장에게 진정한 고마움을 느끼고, 그 고마운 마음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남은 4년의 기간도, 아니 꿈나래통장 저축이 끝난 후에도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갖고 열심히 나아가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아이의 교육자금으로 모으고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든든하고 가슴 벅찬지!"

꿈나래통장이 키운 우리 아이

꿈나래통장 참가자 최순화

저는 아들만 셋인 엄마입니다. 늦은 나이에 막내아들을 얻게 되어 예쁘긴 하지만 생활 형편이 나아지질 않아 늘 막내의 학자금에 걱정이었던 차에 2009년 꿈나래통장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제 다 저축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매달 저축한 금액이 통장에 찍혀가는 금액을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희망을 키웠습니다. 또한 담당 복지사선생님의 안내로 꿈나래 자조모임과 여러 행사에 참석하면서 '세상은 살만하고 따뜻하구나'하고 용기도 가져봅니다. 늘 혼자 해결해야하는 버거운 일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기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예술로 희망드림에 선정되면서 작은 아이가 큰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은 ADHD와 지적 3급의 장애가 있는데, 작은아이가 형에 대한 스트레스가 분노로 이어져 학교생활에 늘 다툼이 끊이지 않아 다치기도 하고 엄마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민하던 중 피아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다니던 학원에서 아이는 선생님의 격려와 배려로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11개월을 보내며 피아노 연주를 잘하고 싶다는 동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올해 5월 초에 피아노연주 발표회를 위해 작은 아이는 피아노 2곡을 열심히 연습한 결과 발표회에서 멋지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감이 넘칩니다. 지금 중3인 아이는 공부에도 열성을 보이며 밤 10시까지 공부

방에 들렀다 집에 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이의 변화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보여준 작은 아이와 늘 잊지 않으시고 신경 써 주신 복지관 윤경희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재단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에게 일어난 작은 변화처럼 모든 꿈나래 아이들이 행복해지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이 감사함이 헛되지 않게 세 아들을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저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씨앗

꿈나래통장 참가자 김숙진

저희가 꿈나래통장 가족으로 입성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2007년이 저물어가는 마지막 날에 우리 집 보물 1호인 민서가 태어났고, 그리고 2년 후 서울시의 꿈나래통장 만들기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던 저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부푼 희망으로 돌이 갓 지난 민서를 안고, 당시 살고 있던 영등포 동사무소를 찾았답니다. 하지만 답변은 싸늘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1차에서 나의 희망은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또다시 기회는 찾아왔어요. 2차 신청 공고가 나자마자 달려갔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희 가족은 신청자가 많다는 말만 듣게 되었지요. ‘하늘은 정녕 우리 편이 아니었나!’ 했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 할 수가 없어 구청으로 직접 찾아갔답니다. 구청 관계자를 만나 저는 호소하였지요. “이 땅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도 힘든 삶을 살아가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같이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니 희망의 씨앗을 주세요” 진심이 통하였나 봅니다. 덕분에 어린 민서에게 ‘희망’인 꿈나래통장 씨앗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7만원이라는 금액을 7년을 부을 일을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나서 저축하는 날짜만 기다렸지만, 생활비가 여의치 않는 달에는 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



만 시련을 이겨내지 못한 행복이 있을 수 없듯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나래통장 입금 날에는 살림을 팔아서라도 넣고 싶은 심정으로 꼬박꼬박 저금을 했습니다. 지금도 커져가는 꿈나래통장 금액을 보면서 딸에게 말해줍니다. “민서야, 이 통장은 서울시에서 민서가 바른 인재로 성장하여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씨앗이란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민서는 제가 말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야?”, “학교 들어가면 배우고 싶은 거 맘껏 배울 수 있겠네?” 철부지 딸의 말이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쁘고 이렇게 고마운 정책을 실행하는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에게 고마움으로 목이 메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희망과 꿈이 더해진 우리 가족

꿈나래통장 참가자 정은주

안녕하세요. 저는 꿈나래통장 참가자 정은주입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의 가족은 친정엄마, 저, 수경, 기성이 이렇게 4식구입니다. 제가 39살이던 해, 수경이가 9살, 기성이 6살 때 남편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벌어야 하지? 전문직이 아니라 여자가 애쓰게 벌어도 100만 원 이하일 텐데…….’ 그렇게 걱정이 많던 저는 너무 고맙게도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동사무소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3시에 일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 수경이와 기성을 돌봐 줄 수 있어서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보니 어느덧 저는 45살이고 수경이는 15살이고 기성은 12살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 친정엄마는 73세입니다. 사위가 먼저 갔지만 엄마가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 주시려고 경동시장 노점에서 노인용 옷을 팔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사가 어느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너무 안 되서 하루에 1~2개 정도 팔릴까 말까 합니다. 그렇더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장사를 나가십니다. 우리 3식구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쉬지도 못하시고 일을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엄마는 집에 있으면 잡념이 생기니까 나가신다고 하시지만 엄마 마음을 알



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장사를 다녀오시면 힘드실 텐데 기성이를 돌봐주시며 항상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저의 첫째 딸 수경이는 아빠가 떠나기 전까지 피아노를 쳤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지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되던 해에 “엄마 피아노 다시 하면 안 될까?”하며 너무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보다 늦었지만 피아노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피아노를 배우던 중에 2009년 9월 꿈나래통장에 참가하게 되었고 문화재단의 예술로희망드림과도 인연이 되었습니다. 매년 5월이면 재단에서 예술로희망드림을 신청하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수경이는 작년에 꿈나무 오디션을 보기 위해 남산 예술센터에 갔었습니다. 오디션에 참가한 많은 아이들을 본 수경이는 주눅이 들었는지 피아노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 긴장한 탓에 암기한 악보가 떠오르지 않아 엉망이 되었다며 울상이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뒷바라지 못한 속상함과 미안한 마음에(두 번 다시는 후회하고 싶지가 않아서) 집에 오는 도중 입시전문학원에 들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있을 대회를 위해 4번 레슨을 받으며 열심히 연습한 결과 자랑스럽게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예술로희망드림 발표 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선정결과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된 예술로희망드림 덕분에 아이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3~4시간, 공휴일, 토요일도 학원에 가서 연습, 또 연습해서 손목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래도 좋은 교수님 만나 레슨을 마음껏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하네요. 수경이가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감사한 마음에 한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올해도 장학금을 받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수경이는 기쁜 마음으로 학원에 갑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기성이는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고 친구들과 축구하기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친구들이 아빠와 함께 축구공을 차는 모습 보면 부러워 할 만도 한데,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부나 삼촌들이 놀러 오면 아이가 너무나 좋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아빠를 몹시도 그리워한 것 같습니다. 엄마로서 모든 것을 해 줄 수 없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우리 기성이는 애교도 많아 할머니가 장사 갔다 오시면 안마도 해 드리고 누나의 기분도 맞추어 주는 멋진 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뼈뺏어지지 않고, 착하게 잘 자라서 감사하고 친정 엄마가 힘드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밝으셔서 저희는 늘 씩씩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 주는 우리가족, 늘 함께 할 수 있어서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방면에 힘써주시는 서울시복지재단에 감사하고 복지관 사회복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큰 도움을 주셨으니 힘을 얻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희망과 꿈이 컸어요

꿈나래통장 참가자 **오희숙**

2009년 꿈나래통장에 선정되어 너무나 기뻐다. 그리고 그 해 겨울 설명회에 참석했을 때 좋은 일로 참여 했는데도 추운 날씨만큼 내 마음은 한편으로 불편했다. 그 이유는 내가 저소득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였다. 그리고 동대문노인복지관에서 처음으로 금융교육을 받던 날, “저축은 미래의 쓸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수첩에 메모하며 열정적인 강사의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 그동안 저축을 잘하지 못했는데 이젠 마음먹고 작은 돈이라도 저축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쇼윈도에 있는 하늘하늘 거리는 하늘색 스커트가 눈에 쏙 들어왔다. 평소에 입고 싶었던 스타일이었다. 가게 앞에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입어 보니 딱 내 옷이었다. 불과 20분전에 금융교육을 받고 저축해야지 했던 마음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바로 소비를 해버린 것이다. ‘내가 간절히 원했던 옷이니 괜찮아’하며 스스로를 토닥이며 집에 왔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이렇게 실천을 하지 못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금융교육 덕분에 가게를 꾸러가면서 한 번씩은 더 생각하고 소비하게 되었다.

복지관의 자조모임을 통해 통장 참가자 가족들도 알게 되면서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쿠키 만들기, 치즈마을 탐방, 한강 유람선타기, 남산한옥마을체험, 남산길 걷기대회, 영화 관람, 공연관람, 악기체험, 케리비안베이, 오션월드, 63빌딩, 키자니아 등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담당 복지사님께서 가족의 유대감과 아이들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셨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막내에게 정말 필요한 멋진 가방도 선물 받았다. 남편과 두 아들은 워터파크 다녀 온 것이, 딸과 나는 파주의 치즈마을에서 다양한 체험과 피자 만들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5인 가족이 한 번 움직이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쉽게 나가기 어려운데 자조모임을 통하여 여러 체험을 하며 가족 간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언제나 혼자 아이 셋을 챙기는 것이 힘들었는데 자조모임에 나가게 되면서 남편은 가족을 챙기게 되었고, 아이들만 데리고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렇듯 남편의 행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이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가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특히 남산길 걷기대회에서는 참가비가 후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더 부담 없는 하루가 되기에 충분했다.

우리 가족에게는 행운이 또 있었다. 2012년 예술로희망드림 씨앗나눔에 선정 된 것이다. 중학교에 입학한 딸이 피아노를 계속하고 싶어 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술로희망드림은 그야말로 우리 가족에게 희망드림이었다. 딸은 피아노를 계속할 수 있었고, 세 아이가 함께 다니면 셋째는 무료로 해주신다고 해서 막내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세 아이들이 모두 피아노를 치고 있으니 형제들 간에 이야기 거리도 당연 피아노였다. 아들은 배운 피아노를 휘파람으로 불기도 하고, 좋아하는 곡은 인터넷에서 찾아 듣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보니 엄마로서 미소가 저절로 나오는 요즘이다. 나는 세 아이들을 피아노 학원에만 보낸다. 다른 사교육을 할 형편도 못되지만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는 스스로 학습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었다. 현실은 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형편이었지만, 나는 취업을 내려놓고 아이 키우는데 전념하기로 했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돈이 들지 않는 많은 행복한 일들을 했다.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를 이야기하고, 가진 것은 없지만 가족이 함께 누릴 것이 더 많다. 그 외 해 줄 수 없었던 문화 활동은 꿈나래 자

감동을 배웠습니다

꿈나래통장 참가자 홍성애

조모임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자조모임 참여할 때쯤 사춘기 딸이 나에게 물었다. “엄마, 우리 집이 가난해? 저소득이야?” 그래서 나는 “엄마가 일을 하면 지금보다 더 돈을 벌 수 있어서 저소득이 안 될 수 있어. 그러나 엄마는 너희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키우려고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거야”하고 말해주었다. 딸이 이해해주길 바랄 뿐이었지만 다행히도 착한 딸은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다.

우리는 꿈나래통장에 매달 10만원씩 꾸준한 저축을 해 총 5년을 저축할 것이다. 하지만 남편과 나는 우리가 10만원을 저축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꿈나래통장을 통해 우리는 저축을 시작하게 되었을 뿐이고 재단에서 20만원을 저축해준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로 꿈나래통장은 저축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키워 준 것이다. 그리고 나는 2009년 꿈나래통장을 시작 할 때 좁 지역의 다문화어린이도서관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결혼이주여성의 멘토가 되어 그녀들과 함께 다양한 연극을 준비하여 학교, 도서관 등을 방문해서 다문화인식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가족이 꿈나래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았으니 나도 가진 재능으로 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사실 봉사는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제는 딸이 중학교 2학년이다. 고등학교에 갈 때 꿈나래통장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가 든든히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가족의 미래는 더욱 밝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가졌던 소중한 추억과 미래에 대한 든든함을 많은 가정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꿈나래통장을 지원해 주시고 다양한 문화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달 저축만 하면 그냥 10만원 도움을 받는 것이지만, 복지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 몇 배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약정식 때하신 재단 관계자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저는 2009년 말 꿈나래통장 3차 참가자로 선정된 후에 위 말씀이 어찌 그리 저를 따라다니던지.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될 듯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워크숍, 서울실내악 축제, 객석나눔 등 평소 비용 때문에 꿈도 꾸지 못했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온 식구가 대중교통을 타고 갑니다(지금은 자동차도 구입했어요). 공연이 끝나면 여지없이 잠들어 있는 둘째(06년생, 참가 당시 4살)와 셋째(08년생, 참가 당시 2살)를 부부가 나누어 업고 지하철 타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참석했던 것은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술로희망드림’은 저희 가족에게 계획하지 못했고, 깊이 생각해 본적도 없는 희망과 꿈, 그리고 감동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큰 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싶어 하는데 “형편상 당장은 어려우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학교에 가면 보내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드디어 초등학교(2010년)에 입학하면서 더 이상은 아이와 약속을 어길 수 없어 인근 피아노 학원에 보내게 되었지만 저희들 형편으로는 유지하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꿈나래통장에서 ‘예술로희망드림’ 프로그램을 접하고서 얼마나 떨 듯이 기뻐는지



모릅니다. 신청서를 밤새 쓰고 고쳐서 접수했는데,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등록한 학원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교재도 무료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큰 아이는 피아노 치는 것을 정말 좋아 했고, 그러다 보니 피아노 학원 선생님과 학원 누나, 형들로부터는 사랑을 많이 받으며,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을 통하여 어린이 집에서 사용하던 중고 피아노를 저렴하게(30만원)에 살 기회도 생겨 집에서 마음껏 피아노를 칠 수 있는 행운도 있었습니다.

1년이 금방 지나 '예술로희망드림' 기간이 끝날 때가 되자 다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성민복지관 복지사 선생님께 떼를 쓰다시피 하여 후원하는 독지가가 있는지 알아봐 주시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결국 그 후 2년 동안 피아노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러한 일이 너무도 감사해서 큰 아이에게 반드시 기억하도록 이야기를 했고, 또한 커서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였습니다(저희가 감사의 편지라도 보내려고 후원자를 알려주실 것을 요청하자 그 독지가 분은 자신을 절대 밝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3년간 이름 모를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큰 은혜를 입었으니 힘들어도 올 해부터는 자비로 피아노를 배우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통해 공문을 접하게 되었는데, 서울시가 전액 후원하고 건국대학교가 주관하는 '건국대학교음악영재교육원'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하여 지원했습니다. 선발 시험 후 아이에게 물어보니, 시험관계서 "떨리냐?"고 물었고, 이에 아이가 "떨립니다"고 하니, "떨리는데도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데, 떨리지 않으면 얼마나 잘 치겠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예상대로 합격해서 지금은 대학교수님으로부터 매주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큰 아이가 피아노를 좋아하지만 저희 부부는 반드시 이 아이를 피아니스트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크면서 정서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예술적 소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 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큰 아이에게 예술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그 과정에서 꿈나

래통장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름 없는 독지가의 후원에 눈물이 납니다.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돕고 섬기려는 그 마음을 본받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술로희망드림'은 저희 가족에게
계획하지 못했고,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희망과
꿈, 그리고 감동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꿈의 씨앗을 가꾸고 있는 조호윤, 호진 엄마

꿈나래통장 참가자 이해연

매달 25일은 희망을 저축하는 날!

벌써 꿈나래통장에 희망을 저축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두 살이었던 아들이 네 살이 되었고, 막내아들이 태어나서 우리 가족은 네 식구가 되었습니다. 꿈나래통장을 알기 전에는 매달 빠듯한 살림살이 때문에 저축은 커녕 마이너스 인생을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꿈나래통장에 저축을 하면서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하게 되었고, 어떻게든 아이들의 교육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기면서 약삭같이 아끼며 살았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우리 가족의 꿈나래통장에는 7만원씩 희망이 쌓이고 있습니다. 어느덧 목돈이 된 꿈나래통장을 보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사줄까?', '어떤 공부를 시킬까?' 등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이들에게 근사한 장난감 하나, 좋은 전집 한 세트 사줄 수 없지만 우리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면 남부럽지 않은 공부방을 꾸며주고 싶습니다. 책장에 빼곡히 책도 꽂아주고 예쁜 스탠드가 달린 책상도 하나 마련해주렵니다.

처음에 우연히 소식지로 알게 된 꿈나래통장을 신청하기 전에는, "과연 나에게 기회가 올까?", "지금까지 길에서 동전 한번 주운 적이 없는데 이런 행운이 나에게 올까?" 등 참 불안하고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서류를 내고 며칠 후 꿈나래통장 합격 소식을 듣던 날의 그 기쁨과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얼마 안 되는 돈일지 몰라도 우리 가족에게는

꿈을 심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꿈나래통장은 우리 가족에게 꿈의 씨앗이고, 희망의 물꼬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처럼 꿈나래통장을 통해 희망을 선물 받길 바랍니다.

"어느덧 목돈이 된 꿈나래통장을 보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사줄까?',
'어떤 공부를 시킬까?' 등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나의 생활에 활력소 복지관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들

꿈나래통장 참가자 구홍서

서울시 꿈나래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공학동에 사는 구한아 엄마 꿈나래통장 1차 참가자 임수영이라고 합니다. 아이 아빠는 일용직 근무를 하는 직업이라 주로 엄마인 제가 아이와 여러 해를 강서구 방화동복지관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꿈나래통장과 손을 잡고 열심히 살아온 지 벌써 4년이 되어 가는데요, 큰딸아이는 7살 유치원생에서 10살 초등학생이 되었고, 갓 태어난 둘째아들은 이제 개구쟁이 7살이 되었습니다. ‘희망의 꿈을 키워요’란 긍정적 목표로 서울시를 따라 즐겁게 생활하다보니 어느새 저희 가족은 안정을 찾으며 미래의 부부 모습과 아이들의 성장모습을 찬찬히 그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더없이 신났고 즐거웠던 복지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매년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정말 살림에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입·출금 관리부터 카드사용 그리고 빚, 채무관리부터 재무관리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시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한일은 가계부를 쓰는 일이 아니라 카드를 자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라는 선생님에 말에 큰 깨달음을 얻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융교육을 바로 실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씩 배우고 생각하고 하나씩 풀어 가면 돈에 대한 스트레스나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고 무언가 해야겠다는 자신감은 두려움을 없애고 반드시 몇

진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조모임에서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한 신생아 모자 뜨기 모임’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작은 모자를 기부하기 위한 모임이었는데요, 저도 거기에 삼삼오오 어머님들과 둘러앉아 서툰 뜨개질 솜씨로 시작했습니다. 봄부터 시작한 모자 뜨기는 겨울이 되어서야 완성 되었지만 째름이 복지관 어머님들과 힘든 일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는 사랑방의 따뜻했던 자조모임으로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지관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체험 활동이었습니다. 매년 새로운 가족들과 평소에는 잘 가보지 못한 장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집 꼬마들도 무척 신나했던 ‘여의도 63빌딩 체험하기’와 횡성 ‘숲체원 캠프’였습니다. 저희 집은 일용직 아빠의 주말 부재로 늘 집에서 엄마랑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복지관에서 마련해준 체험활동은 커다란 선물이고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워낙 복지관 선생님들이 친절하시고 아이들을 예뻐하고 챙겨주시는 덕분에 항상 편안하고 밝은 시간들이었습니다. 63전망대에서 서울을 바라보던 우리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자동차가 장난감만 해졌다”고 웃으며 뛰어놀던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고 그 모습에 저도 행복했습니다. 겨울에 떠난 숲은 눈이 살짝 내려 운치 있는 횡성의 겨울이었습니다. 아직도 숲속의 향기가 기억이 생생하고, 아이들과 낙엽을 밟으며 걸었던 일도 소중한 체험시간이었습니다. 티셔츠 만들기, 숲과 식물 관찰하기 미션 등 알차고 따뜻했던 추억이었습니다. 물론 아빠의 빈자리는 엄마인 차지하고 있어 약간은 미안했지만 즐거워하는 아이들과 같이 어른인 저도 숲에 힐링되어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복지관 이야기는요, 가족활동 시간입니다. 먹거리 만들기도 하고 무용선생님과 활동하는 시간도 생각이 납니다. 특히 무용 활동 시간에는 아이들과 서로 심장을 맞대고 안아보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아기였던 우리 아이들이 커서 포옹이 어색하고 오글오글~ 얼굴을 마주보며 함박웃음으로 엄마를 주물러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눈 맞추고, 깔깔거리는 아이

들을 보니 그만 눈물이 울컥 나오던걸요. 부모는 사는 게 바쁘고, 아이들은 학교가기 바쁘지만 '이제 매일 안아줄게' 기도했던 일이 가장 생각이 납니다. 비록 짧은 무용 활동이지만 큰 가르침과 감사의 마음을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간들은 꼬마들이 직접 만드는 요리 시간이었습니다. 케익 만들기, 월남쌈 만들기, 빼빼로 만들기를 하면서 손이랑 얼굴에 음식재료를 잔뜩 묻히며 완성된 음식을 예쁘게 접시에 담아 놓고 사진도 찍고 그 자리에서 냠냠 찹찹 먹는 우리 가족! 역시 먹는 시간에 제일로 행복합니다. 아빠를 위해 남겨 놓은 음식은 아빠 입속으로 쏘옥~. 비록 늦은 시간에 모이긴 했지만 이 시간만큼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던 성악가 바리톤 김동규님께 공연을 보고 온 날이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을 들어간 것도 처음인데 김동규님의 공연이라니, 너무 멋진 클래식 공연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앙상블과 화음 그리고 신나는 박자가 어우러진 사운드, 마지막으로 성악가 바리톤의 노래 소리, 정말 10월에 어느 멋진 가을날의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2009년에는 객석나눔을 통한 문화공연을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지 않아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작은 소공연일지라도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힘이 되어 삶의 무거운 짐을 벗는 시간이 되니 좀 더 많은 기회를 주셔서 쑥쑥 자라는 아이들과 저에게 파이팅 할 수 있는 멋진 시간을 주세요,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두서없이 많은 이야기를 써보았는데요, 정신은 없지만 소박한 저의 가족의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꿈나래통장이 더 많은 즐거움과 희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젠 제 아이와 가족은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일, 힘들 일도 많을 테지만 단단해 질것입니다. 그 뒤에는 서울시복지재단이 함께 할 것이고요, 같이 손잡고 뛰면서 넘어지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을 것 입니다. 어떤 일이든 도전하고 분수에 맞게 검소하지만 계획된 생활을 할 것입니다. 제 아이들의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이제 꿈나무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땅과 하늘이 될 것이고 제 아이들은 거기

서 싹싹하고 멋지게 자랄 것 입니다.

용기와 따스한 손길의 태양이 되어주는 꿈나래통장 식구들과 복지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가족의 버팀목인 남편, 아이들과 저는 오늘도 아자! 마음속으로 응원해 봅니다, 지켜봐주세요!!

"희망의 꿈을 키워요란 긍정적 목표로 서울시를 따라 즐겁게 생활하다보니 어느새 저희 가족은 안정을 찾으며 미래의 부부 모습과 아이들의 성장모습을 찬찬히 그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술로 희망드림으로 키운 꿈나무

꿈나라통장 참가자 차유미

어질러진 상을 치우는 중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어보세요?”

“예, 어머니, 여기 00복지관인데요. 예술로 희망드림 씨앗나눔에 선정되었습니다.”

“네? 아, 예술로... 그거 말이죠? 아, 네 가... 가가 감사합니다.”

갑작스런 기쁜 소식에 눈물이 주르륵 흘렸다. ‘이 고마움을 누구에게 전할까?, 딸아이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어려운 가정 형편에 건강까지 좋지 않아 밖으로 나가기보단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아인데, 이제는 피아노 교습을 계기로 밖으로 나갈 기회가 생겼다. 한 달 전, 꿈나라통장 인터넷 카페에 예술로희망드림 공고가 떴다. 예전에도 몇 번 지원했지만 그때마다 떨어졌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내 아이가 아닐 뿐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했기에 크게 서운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음을 비우고 신청서를 썼다. “누구는 체르니가 몇 번이래” 이런 말에 휘둘리기보다 음악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아는 소중한 경험으로 생각으로 부족한 글 솜씨로 쓴 교육활동 계획서지만 아이의 가능성과 열정을 봐주신 덕분에 예술로희망드림에 선정되었다고 생각한다. 예술로희망드림 씨앗나눔은 성과가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아이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형편상 기회조차 없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미술이든 음악이든 아이의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그 씨앗 중 하나를 받게 되어 우리 가족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었다. 친구들이 배우는 피아노가 부러워 “술술라라술술미” 계이름을 외우며 흥내만 냈지만, 이제는 예술로희망드림 덕에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고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아직 바이엘이니 체르니니 이런 말도 붙일 수 없을 만큼 생초보지만 아이가 피아노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참 보기가 좋다.

“엄마, 친구들이 너처럼 작은 애가 어떻게 피아노학원을 다니냐고 물어.” 자랑삼아 친구들에게 피아노학원 다닌다는 말을 했다가 핀잔을 들었나 보다.

“아니야, 괜찮아. 피아노는 키로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야. 손과 마음이 함께 모여 피아노 위에서 노는 거야.”

키 작다고 놀림 받고 늦다고 놀림 받아 주눅 든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피아노 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행복한 아이가 되어 가고 있다. 때때보다 유달리 작은 손이 피아노 위를 즐겁게 노닌다. 작건 크건 예쁜건 밍건 무언가에 열중하는 손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 요즘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모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앞에서 아이의 실로폰 연주 공연 시간을 갖는다. 피아노가 없으면 실로폰이라도 연습하라고 하신 피아노 선생님의 말씀을 아이가 따르는 중이다.

“피아노랑 실로폰은 다른 거지 않아?”, “아니야. 괜찮아, 모두 다 음악친구야.”

아이의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모으고 연주를 시작한다. “미레도레미미미 레레레 미미미”. 아이가 날린 희망의 비행기 노래가 온 집안을 맑게 깨우는 듯하다. “잘했어, 축하해” 가족의 웃음소리가 앙코르 곡이다.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도 많지만 머릿속에서 마음속으로 울려 퍼지는 피아노 선율을 들으며 아이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로서 삶이 고된 것만은 아니며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서로에게 소중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먹고 사는데 지쳐 예술이

나 음악이 남의 일이라고만 여겼던 우리 가족에게 아름다운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형편상 기회조차 없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미술이든 음악이든 아이의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그 씨앗 중 하나를 받게 되어
우리 가족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었다.”



내 가족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

꿈나래통장 참가자 김태완

꿈나래통장에 가입한지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처음에 꿈나래통장을 신청하려고 동사무소에 갔을 때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매달 내는 대출금 이자가 월급에 50% 이상이었습니다. 매일 매일 사는 것이 힘들고 희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딸아이를 처갓집에서 맡겨놓고 우리 부부는 직장 일이 끝나면 동네 영세사업자의 하청 일을 받아서 밤 1시 까지 부업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생활의 변화도 없고 대출금은 계속 쌓여 갔습니다. 이 당시에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자괴감과 자신감 결여 때문에 괜히 와이프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부부싸움도 엄청 했습니다. 딸은 처갓집에 있지, 우리 형편은 계속 바닥이지, 게다가 사는 것까지 반지하에 살고 있으니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 사람들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별명이 싱글벙글 이었는데 생활이 힘들어 뼈뺏하게 말하는 모습 본 친구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왜 네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냐?”고 하더군요.

와이프가 꿈나래통장에 대해서 말해 주었을 때 저는 ‘통장가입 기간이 너무 길어 언제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당시 빨리 결과를 보고 바로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선정되어도 좋고 안 돼도 상관없다는 자세로 마지못해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꼭 선정되기를 바라는 절실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 아니 우리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선정되어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꿈나래통장 카페에 가입해서 회원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나누며 가슴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꿈나래통장 카페는 금단현상을 일으켰습니다. 매일 매일 카페에 들어가서 하루의 속상한 이야기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한 공감을 보여주는 회원님 때문에 삶의 원동력을 얻어 든든한 백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 또한 카페 회원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사연을 볼 때는 도와주고 싶고, 좋은 정보를 주려고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e포맷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 도움을 주고받으니 사람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재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전의 제 얼굴은 사라지고 웃음으로 편안한 얼굴이 되면서 우리 가족에게도 희망의 씨앗이 보이더군요. 이제는 와이프하고 미래의 계획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라고 좋아합니다. 이제 저도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전에 무거운 걸음걸이가 아닙니다. 우리가족도 제가 어릴 적 꿈꾸던 행복한 가족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되세요.



희망에너지

꿈나래통장 참가자 정연형

저희는 2009년 2차 꿈나래통장 사업에 참가하여 현재 4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한부모가정으로 아이가 넷인 다둥이 가정입니다. 형제가 많아 다복함은 있지만 저희 형편에 어느 가정의 기본적인 학원수강과 같은 뒷바라지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저의 7여년에 걸친 투병생활의 고단함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형편을 잘 아는 동사무소 직원분이 아이들을 위한 꿈나래통장을 추천해 주셔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네 자녀 중 한 아이의 학비라도 도움이 될까 신청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혜택과 지원들이 상당했습니다. 파산신고까지 했던 우리 가정에 재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조금이나마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어 금융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통장 가입 가정들과의 물물교환과 어려운 처지에서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글들과 이야기가 저에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둘째아이의 예술적인 능력은 교육청과 대학영재원에 합격했지만 저희 형편으로는 뒷바라지를 할 수 없어 좌절스러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술로희망드림 사업에 선정되면서 아이의 꿈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는 점이 부모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이 역시 이전보다는 훨씬 밝아졌고, 도움주시는 많은 고마운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긍정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셋째아이도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꿈키아트스쿨에 참가하여 서류1차와 2차 합격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가정에서는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꿈나래통장 가입 후 얻은 경제적 도움 외에 한 층 더 밝아진 아이들 모습이, 어려워도 한 발짝 더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 희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희망을 주신 사업 추진 관계자 분들께 더할 나위 없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많은 가정들이 도움을 받아 좀 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삶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희망플러스 · 꿈나래 통장 참가자 수기집 ●



서울시복지재단-2013-29

- 발행일 : 2013년 10월
- 발행처 : 서울시복지재단
- 발행인 : 임성규
- 편집인 : 송성숙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신문로2가 1-43)
- 전 화 : 02-2011-0400
- 팩 스 : 02-2011-0500
- www.welfare.seoul.kr

※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